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5.90원 하락한 1,177.20원에 마감
-------------	------------------------------

9일 환율은 전일대비 5.90원 하락한 1,177.2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60원 내린 1,181.50원에 개장했다. 아시아 시장에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환율은 하락하였다. 미국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결제수요가 나오면서 하락폭은 제한되어 전일대비 5.90원 하락한 1,177.20원에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43.23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81.50	1182.30	1176.90	1177.20	1178.4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45.85	1045.85	1040.30	1043.52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71.09	1371.37	1361.78	1365.02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26	0.87	2.39	5.29
	결제환율(수입)	0.8	1.8	3.8	7.66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美 뉴욕증시 하락에 위험선호 위축... 1,170원대 후반 중심 등락 예상
--------------	---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1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177.20원) 대비 1.30원 오른 1,179.60원에서 최종 호가 되었다.

금일 환율은 달러화 약세에도 글로벌 위험선호 위축, 국내증시 외국인 자금 이탈 연장 등에 상승이 예상된다. 뉴욕증시는 미국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차익실현 물량이 대거 유입되며 9거래일 만에 하락하였다. 시장은 10월 CPI(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5.9%로 예상하고 있다. 테슬라는 마이클 버리 트윗 이후 약 11% 주가가 하락했고 페이스북은 실적 부진 및 4분기 전망 하향 때문에 금

용주 약세를 주도하였다. 미국 증시 하락에 아시아 증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외국인 국내주식 순매도세에 주목해야 한다.

다만, 수출업체 이월 네고 및 중공업 물량 부담은 환율 상승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직전보다 입찰이 부진했음에도 5.66bp 하락하며 달러화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75.50 ~ 1181.50 원
체크포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373.06 억원■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30원 ↑■ 美 다우지수 : 36319.98, -112.24p(-0.31%)■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84.95 억달러■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2414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